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4호 [주제 제25447호] 주제 105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인 최통해동지와 김기남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을 찍으시였다.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영길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편  
단심 우리 당민을 굳게 믿고 당중앙  
결사용위, 충실향의 전통을 억세게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애국충정  
의 피와 땀을 다 바지였으며 동맹  
조직강화에 적극 기여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인 최통해동지와 김기남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로동계급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직업동맹  
을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응호자로  
굳게 믿고 내세우시며 대를 두고  
잊지 못할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인 환호를 울리고 또  
울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  
전체 참가자를

참가들이로동계급의 대중적정치  
조직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만년  
재보로, 고귀한 밀원으로 간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핵심이 되고 선도자가  
되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파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직업동맹을 영원히  
수령의 직업동맹, 당의 직업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세시대 만리마진군으로 총궐기시킴  
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  
를 앞당기는데 활달계 이바지해나갈  
불리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여러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신문, 인터넷에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  
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조선로동  
당사건 71쪽에 즈음하여 도이  
월란드 베를린 아차위데미아프린  
드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하였다.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되  
었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인ぐ하  
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1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

사업총화보고를 출판하게 된것은 우  
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가 조선  
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편협세력의 온갖 혐  
오를 풀리치고 통일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  
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

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4.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를 얼마전 판자니  
아신문 《우후루》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사진문화원을 모시였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신문 《르  
풀》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조선로  
동당의 중요한 기초》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사회의 항도적력왕인  
조선로동당은 1926년 10월 17일  
김일성주석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  
주의동맹과 매우 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e. g.》에서부터  
조선로동당의 역사적뿌리가 내편에

## 《김정은, 그이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여러나라신문, 방송특집

위대한 뻔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높이 추대  
되신 19돐, 조선로동당창건 71돐,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90돐에 즈  
음하여 인도네시아, 만마의 신문,

방송이 8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에 특집하였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  
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하며 유  
일한 무기는 사상이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  
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

한다.

사상의 위력이 가지는 중요  
성과 의의를 길이 통찰하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께서

내놓으신 사상론을 들어쥐고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제기되는 파업

들을 사상의 위력으로 수행해나가

도록 하신다.

그이께서는 전당의 통일과 단결

을 이룩하는 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계신다.

조선로동당이 제국주의자들의 끈  
질긴 태조선암살공세의 전례 없는

경제제재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  
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혁명파업  
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은것

통일단결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었기때문이다.

만마신문 《더 뉴 에이 위》는

201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1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라는 표제밑에 특집

하였다.

신문은 《김정은, 그이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

[조선중앙통신]

사 설

# 영웅적 김 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자

온 나라 전체로 통계금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당파 혁명발전에서 최전선기자가 펼쳐지고 있는 뜻깊은 올해에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가 열린 것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당에 충실했고 통계금의 대중적 정치 조직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전투부대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는 당의 두리에 굳게 묶친 통계금의 단결된 위력과 훌륭한 기상을 온 세계에 파시하고 직병조직들의 기능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 통계금과 전세 직병조직을 세시대의 만리마라진 군에로 충돌기시키는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 서한을 보내시어 김 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 임무와 직업동맹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온은 전제 대회참가자들과 통계금, 직병원들과 직병일군들은 지금 새한 걱정과 환희에 휩싸여 있으며 당시 세시한 전투적 사업을 높이 달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승호한 일무를 다해나갈 불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우리의 통계금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담당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 아래 창성강화되어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이 맑아롭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일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통계금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고 통계금에게

의거하여 혁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병도원칙이다.

우리 혁명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선 오늘 당중양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행동을 충직하게 발달하는 조선로동계급에 영웅적 김 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었다.

김 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부통에는 통계금을 전통에 내세워 거창한 사회적 사적번역들을 이룩하고 전업직원들을 세시대의 만리마라진 군에로 충돌기시키는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조선직업총동맹은 당에 충실했고 통계금의 대중적 정치 조직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위력한 전투부대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는 당의 두리에 굳게 묶친 통계금의 단결된 위력과 훌륭한 기상을 온 세계에 파시하고 직병조직들의 기능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 통계금과 전세 직병조직을 세시대의 만리마라진 군에로 충돌기시키는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 제7차대회가 세시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떨어나고 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전인민적 충진군에서는 마땅히 혁명성과 조직성을 강하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통계금이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한다.

영웅적 김 일성-김정일로동계금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승리의 진로로를

열어나가는 길을 응집한 주력부대이다.

수령님들의 통계금은 혁명생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경희의 불기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만 세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군은 신념을 갖고 전쟁승리를 위하여 군함없이 투쟁하는 군사자금을 알고 당의 군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철학을 체현하는 군사원은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을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되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되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되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체의 실념, 자력자강의 의지는 천재로 강해지고 있다.

원주민들의 그 어떤 세대와 함께, 남에게는 천재로 강해되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작전은 지금 국도에 달하고 있다.

작들이 말았으면 할수록, 날단이 겁쟁이수록 우리 로동계금의 가슴속에 만장연약한 주





# 사회주의 만복을 누려갈 인민의 모습을 여기서 본다

얼마전 우리는 유경안파종합병원이 당의 인민종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이 그대로만 염원도 또 하나의 인민의 병원으로 홀륭히 일떠설 것으로써 병원촌의 면모가 더욱 환하게 갖추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서둘러 문지구에 오기 기행길에 올랐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같은 인민사랑에 만들려 흥을 끌어들여 일어서 현대적인 병원들의 모습이 한복의 그림처럼 인민과 우리의 가슴은 정직으로 미묘한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둘째만세소리가 놀이를 더해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의 기행은 온 나라 너성들

## 몇 해 사이에 더

이 청정집이라고 정답게 부르는

정양산원에 홀륭하게 일떠선

유선종양연구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양산원미당에 들어서는 우리

의 눈앞에는 귀여운 익동자를

안고 기쁨에 넘쳐 밝게 웃는

로

우리는 화상진단과의 유관

내시경실과 CT실, 탐색면드센

실을 비롯한 여러 방들을 들어보았다.

이렇게 때 방들은 당의 뜨

거운 온정과 미련된 침단의료

설비들이 그쁜지 갖추어져 있어

우리 너성들은 사회주의보건체

도의 혜택을 더욱 마음껏 누리

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돌아보는 과정에 우

리는 유선병연구실 실장 김순

애, 의사 김원희, 김명원동무의

마음을 보며 자리인은 자기의 위

치를 무겁게 자각하였다.

동침에 맞는 건축미가 한껏 느

껴지는 병원건물이며 그 주변에

주단처럼 펼쳐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제의 조각상들과 아의들

## 죽 훌 릉 하 게

이하

주도로 간호조명형식으로 처리한

천정조명, 은은한 색감의 비단라

일, 벽지를 블어신듯 한 안정감을

주는 벽면들..』

소장 리정원동무의 인내를 받

으며 우리는 화상진단과의 유관

내시경실과 CT실, 탐색면드센

실을 비롯한 여러 방들을 들어보

았다.

전진 청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아담도 우리 너성들의 또 하나의

사랑이었다.

수십년전 우리 너성들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홀륭한 정양산원을

일떠세워주시고 사랑의 보석주단

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함께 정양산원에 헌

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마련해주

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의 거룩한 자주이

여러분은 연구소의 내부는 어느

곳이라 할것없이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시원하게 드린 중앙홍이여 온

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더해

주도로 간호조명형식으로 처리한

천정조명, 은은한 색감의 비단라

일, 벽지를 블어신듯 한 안정감을

주는 벽면들..』

여기에는 미련된 침단의료

설비들이 그쁜지 갖추어져 있어

우리 너성들은 사회주의보건체

도의 혜택을 더욱 마음껏 누리

고 있습니다.』

연진축면적이 3만 2 800

여m<sup>2</sup>이고 6층으로 이루어진 아

동병원은 절모습만 보아도 이

이들의 궁금이라는 데밖에 알

리었다.

동침에 맞는 건축미가 한껏 느

껴지는 병원건물이며 그 주변에

주단처럼 펼쳐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제의 조각상들과 아의들

들이 들을수 없었다.

얼마나 복받은 너성들인가.

병이 날세라 정상적인 걸전체계

가 세워져있고 아름새라 세제적

인 첨단의료설비들을 그쁜하게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에

서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고마운 품에 얹겨

사는 우리 너성들은.

전진 청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아름다운 우리 너성들의

사랑이었다.

수십년전 우리 너성들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홀륭한 정양산원을

일떠세워주시고 사랑의 보석주단

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함께 정양산원에 헌

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마련해주

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의 거룩한 자주이

여러분은 연구소의 내부는 어느

곳이라 할것없이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시원하게 드린 중앙홍이여 온

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더해

주도로 간호조명형식으로 처리한

천정조명, 은은한 색감의 비단라

일, 벽지를 블어신듯 한 안정감을

주는 벽면들..』

여기에는 미련된 침단의료

설비들이 그쁜지 갖추어져 있어

우리 너성들은 사회주의보건체

도의 혜택을 더욱 마음껏 누리

고 있습니다.』

연진축면적이 3만 2 800

여m<sup>2</sup>이고 6층으로 이루어진 아

동병원은 절모습만 보아도 이

이들의 궁금이라는 데밖에 알

리었다.

동침에 맞는 건축미가 한껏 느

껴지는 병원건물이며 그 주변에

주단처럼 펼쳐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제의 조각상들과 아의들

들이 들을수 없었다.

얼마나 복받은 너성들인가.

병이 날세라 정상적인 걸전체계

가 세워져있고 아름새라 세제적

인 첨단의료설비들을 그쁜하게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에

서 마음껏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고마운 품에 얹겨

사는 우리 너성들은.

전진 청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아름다운 우리 너성들의

사랑이었다.

수십년전 우리 너성들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홀륭한 정양산원을

일떠세워주시고 사랑의 보석주단

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함께 정양산원에 헌

적인 유선종양연구소를 마련해주

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의 거룩한 자주이

여러분은 연구소의 내부는 어느

곳이라 할것없이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시원하게 드린 중앙홍이여 온

화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더해

주도로 간호조명형식으로 처리한

천정조명, 은은한 색감의 비단라

일, 벽지를 블어신듯 한 안정감을

주는 벽면들..』

여기에는 미련된 침단의료

설비들이 그쁜지 갖추어져 있어

우리 너성들은 사회주의보건체

도의 혜택을 더욱 마음껏 누리

고 있습니다.』

연진축면적이 3만 2 800

여m<sup>2</sup>이고 6층으로 이루어진 아

동병원은 절모습만 보아도 이

이들의 궁금이라는 데밖에 알

리었다.

동침에 맞는 건축미가 한껏 느

껴지는 병원건물이며 그 주변에

주단처럼 펼쳐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제의 조각상들과 아의들

들이 들을수 없었다.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회색의 매국노, 박근혜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자

## 살인폭력《정권》퇴진하라, 박근혜가 물러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역도퇴진운동 남조선 전지역으로 급속히 확대, 비상시국행동에로의 돌입 선포

【평양】 10월 29일밤 조선중앙통신은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해 하면 무과와 무등, 무지로 남조선 선을 력대 쇠약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를 기어이 실 판에 들어내고 암암 낭조선 각계층의 두쟁이 점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엄중한 위기를 초래한 피폐집권세력에 대한 분노를 알고 각계층은 27일 페어 시 국선언 운동을 결의하였다.

경북대학교 교수들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세가 국정을 통한 핵임은 박근

에게 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국운에 빠뜨린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신하고 주장하였다.

경희대학교 교수회도 『최순실게이트』는 박근혜의 미성숙과 무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물

려해가 근본원인이라고 하면서

비서실교체와 전직내각이 『대통령』의 무능을 대신 할 수 없으나

깨끗이 나라고 들어왔다.

충청남도지역의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회는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는 회색의 남조선을 만드는 박근혜를 규탄하며 청와대에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민주로총은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라』고 하면서 전체 민중이 11월 12일 민중총궐기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피고 원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헌사모임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판면

선언을 통해 민중을 통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

며 현 시대의 주범인 박근혜와 내

각은 종시퇴하고 요구하였다.

최순실을 국정책임자로 만드는 데 협조한 여당의 책임도 결

고 거여울수 없다고 하면서 주제는 『여우누리당』이 민중앞에 무

물풀고 사죄하며 즉시 스스로

해체하고 인정하였다.

경북대학교 교수들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세가 국정을 통한 핵임은 박근

에게 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자

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국운에 빠뜨린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신하고 주장하였다.

충남시국회의회는 『박근혜는 회색의 남조선을 만드는 박근혜를 규탄하며 청와대에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민주로총은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라』고 하면서 전체 민중이 11월 12일 민중총궐기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피고 원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헌사모임은 『박근혜, 최순실게이트』판면

수사과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

전서를 발표하였다.

21세기 청소년 공동체의 망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

지고 박근혜가 망원 민주주의를 청소년들이 삶될 것이라고 선언

하였다.

또한 각계 층 시민들이 광화문 주변을 비롯한 어미곳에서 시위 행진, 박근혜 분노시민행동 등을 벌리며 『최순실의 나라에서 더

이 살 수 없다』고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해 원장을 비롯하여 온 서울시를 박근혜에 전

한하고 강조하였다.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요구하

며 퇴진 기운을 고조시켰다.

한편 2016년 충총궐기 투쟁본부는 12월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상시국행동에로의 투입을 선보였다.

단체는 최순실, 박근혜 『정권』

의 향상을 일소해야 할 때가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박근혜에게

부상한 운용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을 명확히 짚게 되었다

고 하면서 단체는 국정총동을

온전히 박근혜에 전

하고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에서도 박근혜에 전을 요구하는 이곳 대학생들의 시위행진이 있으므로 새주제하고 총학 생활에는 대학생회원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가 민중의 규탄앞에 진실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대구에서 어떠한 계획도

한국의 대구에서 어떠한 계획도</